



어린이 책을 읽는 한 어른의 생각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펴낸
최윤정씨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윤정(39)씨는 의진(10)이 휘진(5)이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문학고지성사)를 펴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읽고 싶어 아이들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식구들 밥 안 굶길 정도의 가사노동을 제외하고는 집안일 모두를 뒤로 미룰 만큼 몰두하게 되더군요”

3년 넘게 아이들 책을 읽다보니 문제의식이 깊어지고 때로는 견잡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해서 최윤정씨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글을 실어줄 만한 매체가 없었다. 어린이 책과 그 주변문화에 대한 시평에 가까운 그의 글들이 책으로 묶인 사정이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했을 우리나라 어린이 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문화의 문제점들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 늘상 되풀이되는 뻔한 문제제기와 당위적인 결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직접 경험한 불편부당함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

우선, 우리나라만큼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한 모든 부담을 온전히 부모에게만 전담시키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서점도 도서관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실정이라도 모든 부모들이 다 개별적으로 아이의 책을 고르고 구입해야만 한다는 것.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를 골라내는 일은 쉽지 않다. 가끔 ‘좋은 책’ 목록 같은 것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최윤정씨는 이런 목록제시가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한다. 오히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에 대한 꼼꼼하고 객관적인 서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책에는 이리저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 외에도 아이들 책 몇권에 대한 평을 수록하고 있다. 어린이 책이나 독서지도에 관심을 가진 어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다.

“가장 좋은 독서지도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뽑아 읽어도 상관없을 만큼 좋은 책만으로 채운 책꽂이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교훈이나 독후감을 애써 강요하기 보다는 책을 읽고 난 후 뭐라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채워주는 감동과 기쁨의 느낌을 스스로 맛보며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박남정 기자



근대 미술 일군 우리 화가의 지형도

《근대 수묵 채색화 감상법》 펴낸
최열씨

“우리 미술사에서 근대의 의미는 모호합니다. 따라서 그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근대 수묵 채색화 감상법》(대원사)은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활약한 우리 화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다. 최열씨(42, 미술평론가)는 본래 현대 수묵화 전공자. 하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 조선후기와 현대 사이에 끊어진 지점을 발견했다.

“이동주·이규열·윤범모 선생의 책을 읽고 간송미술관·국립박물관·민간화랑의 특별전시회, 대학박물관을 돌아보니 희미하게나마 잃어버린 시대의 지형도가 그려졌습니다.”

이동주씨는 근대 그림의 특징을 ‘철학·이념·의미의 세계’를 버린 채 조형 형상을 추구하는 세련된 도시감각으로 요약했다. 귀족들의 문화가 점차 상품으로서의 그림에 자리를 내주면서, 그림의 구매층인 도시 중인의 감성을 자극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열씨는 근대와 현대미술을 꿰는 개념도 이전의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 대신 근대적인 ‘기운생동(氣韻生動)’과 ‘활동운화(活動運化)’를 채택했다.

실제로 신감각파의 호시적인 조희룡(1789~1866)이나 전기(1825~1854)는 중인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김수철(1820?~1888)의 〈하화(夏花)〉, 정학교(1832~1914)의 〈괴석〉 등의 작품은 지금 감각으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세련미를 보인다. 최열씨는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는 몇몇 화가를 신감각파로 분류하고,

세기말에 활약한 화가들을 형식파로 묶었다. 형식파는 일제 침략기에 민족성이나 자주성을 드러낼 고유한 것을 찾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장승업이나 채용신의 그림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신감각파가 새로운 양식실험으로 미술사적 전환을 가져왔다면, 형식파는 외세출출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미술흐름을 주도한 셈이지요.”

세기말에 나타난 복고경향을 중국의 모방이라느니 퇴보라느니 하던 이전의 평가는 자연히 무의미해진다. 그림에 드러난 시대정신을 그 정신이 숨쉬었던 시대에서 추출해 보면 하우저의 말처럼 “아름다움에는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제 작업은 화가들의 삶과 영혼에 이르는 문턱 어귀까지의 안내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상은 보는이의 영혼의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록이나 참고자료를 자세히 소개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책의 집필은 화가별·장르별로 흩어져 있는 구술을 모아 꿰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최열씨는 다음 작업으로 ‘19세기 중엽부터 1945년까지 미술비평 및 한국근대화단 활동사’를 준비중이다.

— 이현주 기자





편지글에 깃든 각별한 육친애

《못다쓴 편지》 펴낸 김호기씨

맘을 가질 것을.”(논산훈련소에서, 아들)
“공학은 우선 준비하고, 그리고
스마트해야지. 너도 잘 택했다.”(62. 3. 14.
어머니)

문학에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김호기씨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과학기술
관료의 길을 선택했다. 국립과학원 교수를
지내고, 과학기술처 심의관과 주불대사관
과학관을 거쳐 국립과학관 관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공공에너지를 관리하는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높고 낮음에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고 있는
김호기씨는 향정의 문학과 뜻을 펼치는 데
매진할 생각이다. 2회 수상자를 낸
‘한무숙 문학상’을 계속해나가면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신인작가를 후원할 복안을
갖고 있다.

“역사는 흐른다》〈만남〉〈생인손〉 등
어머니가 쓴 작품들의 해의 소개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문호들의 생각을
돌아본 문학기행도 쓰고 싶습니다.”

— 최성일 기자

“1백미터 달리기를 못하는 것
말고는 결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김호기씨(55,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센터
소장)에게 어머니 향정(香庭) 한무숙은
완벽한 여인상이었다.

향정 선생이 타계한 지 벌써 사년째.
93년 발족한 ‘한무숙 재단’과 가족이
중심이 되어 선생의 뜻을 기리는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마다
기일(1월 30일)에 맞춰 책을 발간하는 일도
네해째를 맞는다. 동료 선후배 문인들이
쓴 추모문집 《풍요한 부채》(94), 향정
문학을 되새겨본 《한무숙 문학연구》(95),
먼저 간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한
《못다한 약속》(96)에 이어 4주기를 맞아
《못다쓴 편지》(을유문화사)가 나왔다.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책은 《못다한 약속》
의 속편. 어머니에게 보내는 아들의 애뜻한
사연이 담긴 편지글 모음이다. 아들이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아버지도 한 수
‘훈수’를 두고 있다. 표지제자와
표지그림은 부친(김진홍)이 쓰고 그렸다.

군복무·해의유학·해외파견근무 등으로
떨어져 있는 동안, 김호기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6천여통에 이른다.
호기씨가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향정의
편지 등을 더해 130여통을 실고 있다.
때에 따라 여섯 마디로 나눠 편지를
수록했는데 각 장의 첫머리는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못다한 아들의 심중고백이
장식한다.

모자가 주고받은 편지를 읽노라면,
각별한 글육지정을 느낄 수 있다.

“우린 서로 믿음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고운



오페라 관람에의 권유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펴낸 양진모씨

수천만원짜리라도 감동을 못 느낄 수
있는 반면 작은 트랜지스터를 통해 듣는
음악이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와 가수가 좋은 음반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감명받을 수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고 좋은 음반
아닐까요?”

감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양진모씨는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배명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오페라
감상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한다.
욕심대로라면 직접 무대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
외국처럼 시즌별로 다양한 작품이 계속
공연되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짜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현재 음악관련 잡지에 음반리뷰를
연재하고 있는 그는 오페라 음반에 관한
다음 책을 기획하고 있다. 대체로 베르디와
바그너의 이름다운 오페라곡을 좋아하는
양진모씨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공연은
89년에 내한한 무소르그스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의 깊이있는 공연이다.

— 마정미 기자

“오페라를 고상하고 수준높은 예술로
여겨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페라는 대중에 의해 향유되고
발전되어 온 종합예술입니다.”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폴빛)를 펴낸
양진모씨(32)의 말이다. 지금까지 오페라를
만나러 ‘예술의 전당’으로 나서는 길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오페라를 관람하기 위한 간단한
준비운동이다. 오페라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기획된 책이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사랑과
질투, 삼각관계가 주종이고, 종교와 혁명 등
인간사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오페라
28편의 스토리와 작품 설명을 모았고,
아주대 강사인 김선욱씨와 공저로 꾸민
오페라 입문서다.

“올해로 오페라는 탄생 400주년을
맞습니다. 종합예술인 오페라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큰 인기를 모았으며, 당시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오락거리였기 때문
에 서민들에게도 급속도로 퍼졌지요.
처음에는 상류층이 즐기는 고급오페라로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델로 한
교훈적이고 딱딱한 이야기가 주류였지만
점차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오페라 공연은
레퍼토리가 적어 다양하게 즐기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양진모씨는 무대공연 관람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한글자막이 삽입된
좋은 오페라 비디오표를 감상할 것을 권한다.
오페라 성악곡 위주의 클래식 CD만도
4천여 장을 소장한 그에게 좋은 음반을
고르는 기준은 곧 감동이다.

“오디오기기가 아무리 좋은

